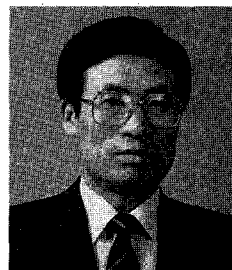


99년도 정부의 농산물 물류시책 방향

— 농림부 —



농림부 유통정책과장
이 상 웅

'96년 1월부터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선진 유통기법을 가진 외국유통 업체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유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 넘어 유통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통합하고 Network화 함으로써 유통의 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속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면 농산물 유통구조가 보다 선진화된 모습으로 탈바꿈 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취해 왔었으나 투자의 부족과 생산자·소비자·유통인들의 인식부족, 그리고 이해관련 집단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아직도 「고비용·저효율」의 유통구조를 못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97년에 조사된 농산물 물류비는 약 6조 2천억원으로서 전체 유통비용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물류비의 경우, 전체 GDP대비 16%인 점을 감안 할 때 농산물의 물류효율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농산물이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되므로써 수집·분산 단계에서 생산자, 수집상, 반출상, 도매상, 중매인, 소매상등 많은 단계를 거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가격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수확, 상·하차, 수송 등 고정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으며, 부패·변질·감모 등 농산물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유통마진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물류관리상 어려운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인들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고, 소비자는 질 좋은 농산물을 될수록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과 소비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농산물유통개척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예산에대한 농산물 유통예산 비중을 98년의 6%에서 99년에는 15%로 늘렸으며, 2002년까지는 유통예산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하여 유통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산지유통체계 혁신으로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체제 구축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소비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정부는 산지 지역농협으로 하여금 조직을 경제권 중심으로 합병하여 경제사업을 규모화·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동출하·직거래등 산지유통을 선도하고 혁신해 나갈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우선 품목별 주산지 중심으로 97년에 30개소, '98년에 60개소의 시범농협을 지정하고 2001년까지 이를 150개소까지 확대하여 생산자 단체의 공동출하비율을 현재의 35% 수준에서 2002년도에는 60% 수준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채소·과일 산지유통센터(포장센터)를 2002년까지 220개소, 미곡종합처리장 370개소, 축산물종합처리장 12개소를 건설하여 생산량의 30~40%를 산지에서부터 선별·포장·브랜드화 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제한된 사회간접자본으로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관 운송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며, 물량의 신속한 이동과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하역 및 운송의 현대화와 기계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거래단위, 규격 또는 중량 등의 단위를 표준화하는 것은 물론 파렛트 및 컨테이너 등을 규격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업체류와 같이 부피가 크고, 부패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인력에 의해 상·하차되는 농산물의 경우 수송, 하역, 감모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관 운송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 효율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내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인상을 추진하는 등 포장품과 비포장품의 차별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24개 주요농산물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이 90% 이상 되도록 재정비를 완료하고, 규격포장재에 대해서만 포장재가 지원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며 하역의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등 하역기계화장비 보급을 확대함과 아울러, 올해부터는 그 지원 조건도 대폭 강화(용자80% → 보조50%, 용자30%)할 계획이다.

한편, 무·배추 등 포장화가 잘 안되고 있는 품목(5개)의 물류개선을 위하여 표준 출하규격으로 출하하거나, 표준파렛트(매쉬파렛트, 다단식 목재박스)에 적재 출하하면 포장재비 또는 파렛트 공동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 농산물 물류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그동안 도매시장 위주의 농산물 유통에서 탈피하여 농산물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경매없는 예약·주문거래로 유통단계를 단축하기 위해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98년 3개소(양재·창동·청주)를 개장하였으며, '99년 중에 5개소를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물류센터는 유통단계 축소 뿐만 아니라, 파렛트 적재출하·하역기계화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산지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선진유통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물류센터 건설촉진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민간의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기존 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의 전환('99년 2개소)을 유도하고, 건설중인 12개소 이외에 「공공소유·민간운영」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물류센터를 추가 건설('99년 중 4개소)할 계획이다.

개장초기 물류센터 운영정착을 위해서 산지 생산자조직을 물류센터 전속 출하조직으로 육성하고, 할인점·판매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판매가맹점으로 확보토록 유도하기 위해 매취자금 지원('99년 159억원)을 확대하였으며,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 가맹점과의 전자상거래(EDI)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 기대되는 효과

이러한 유통개선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산지생산자조직이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계약 재배된 농산물을 대량으로 포장화·규격화·브랜드화하여 공동출하비율을 60% 수준까지 높일 수 있게 되어 농업인들의 시장교섭력이 강화됨은 물론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거점지역에 32개 공영도매시장, 18개 물류센터가 개장되고, 유사도매시장이 제도권으로 흡수될 뿐만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따라 출하자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경쟁에 의한 공정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산지·도매·소매단계 유통상의 비능률이 척결됨으로써 농산물 유통비용을 현 19조원에서 14조원으로 30% 수준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는 보다 싼 값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는 보다 싼 값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유통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감귤의 파렛트화



▲ 마늘의 파렛트화